



## 진상계렬이야기 (1)



관음보살은 여러 사람들에게  
사람으로서 응당 선량하고 광명  
하게 살아야 하며 절대로 자사자리  
하고 도덕을 지키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깨우쳐 주었다.



## 진상계렬이야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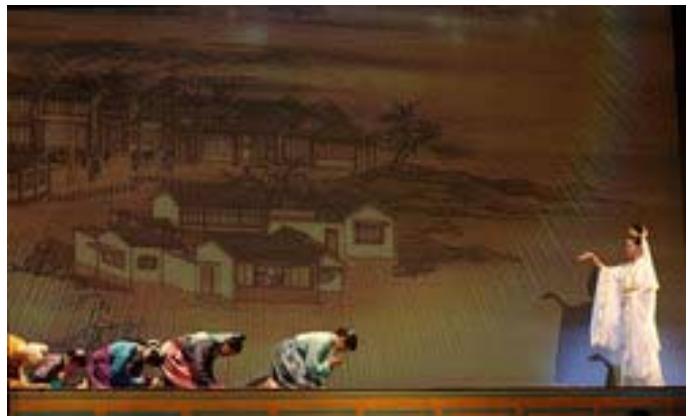


관음보살은 여러 사람들에게  
사람으로서 응당 선량하고 광명  
하게 살아야 하며 절대로 자사자리  
하고 도덕을 지키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깨우쳐 주었다.

## 빨간 눈 돌 사자의 이야기



아주 멀고도 먼 옛날, 한  
마을에 사람들의 도덕은 이미  
아주 나쁘게 변하여 하늘의 신은  
곧 이 마을을 훼멸시키려고  
하였다.



겁난이 지나간 후, 관음보살은  
또다시 요행히 살아남은 마을에 현신  
하였다. 여러 사람들은 무릎을 끊고  
공손히 절을 하면서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구도에 감사를 드렸다.



아주 멀고도 먼 옛날, 한  
마을에 사람들의 도덕은 이미  
아주 나쁘게 변하여 하늘의 신은  
곧 이 마을을 훼멸시키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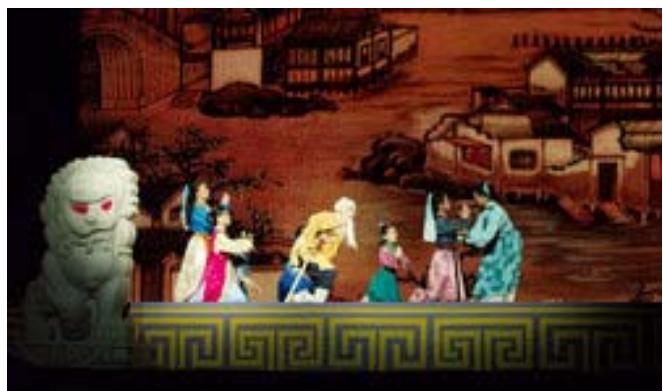
겁난이 지나간 후, 관음보살은  
또다시 요행히 살아남은 마을에 현신  
하였다. 여러 사람들은 무릎을 끊고  
공손히 절을 하면서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구도에 감사를 드렸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할머니  
가 제때에 진상을 알려주어 재난을  
면하도록 한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란세 속에서도  
의연히 선량한 본성을 지닌 늙은  
할머니 한 분이 있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할머니  
가 제때에 진상을 알려주어 재난을  
면하도록 한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란세 속에서도  
의연히 선량한 본성을 지닌 늙은  
할머니 한 분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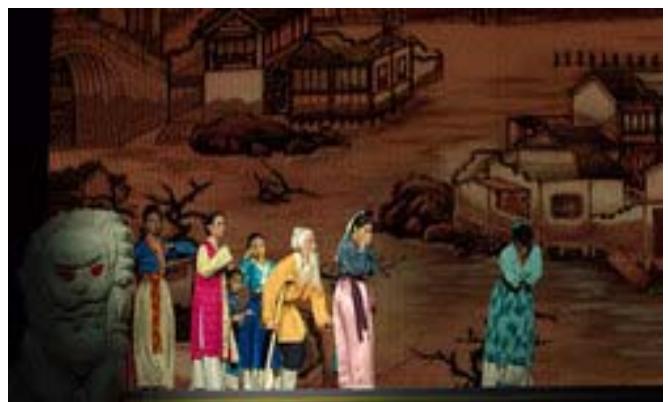
할머니는 날마다 불상  
앞에서 향을 태우고 절을  
올리면서 몸을 수련하고 덕을  
쌓는데 열중하였다.



할머니는 날마다 불상  
앞에서 향을 태우고 절을  
올리면서 몸을 수련하고 덕을  
쌓는데 열중하였다.



그리고 할머니의 말을 믿은  
마을사람들은 모두 행운으로 재난을  
면하였다. 홍수가 지나간 후, 그들은  
모두 마을로 돌아왔다.



그리고 할머니의 말을 믿은  
마을사람들은 모두 행운으로 재난을  
면하였다. 홍수가 지나간 후, 그들은  
모두 마을로 돌아왔다.



할머니의 권고를 듣지 않은 사람들과 할머니를 비웃은 사람, 할머니가 요언을 펴뜨린다고 질책한 사람들은 모두 목숨을 잃어버렸다.



할머니는 남을 돋기를 아주 즐겼는데 밖에 비가 곤 내리려는 것을 보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없나 하여 밖에 나가 보았다.



할머니의 권고를 듣지 않은 사람들과 할머니를 비웃은 사람, 할머니가 요언을 펴뜨린다고 질책한 사람들은 모두 목숨을 잃어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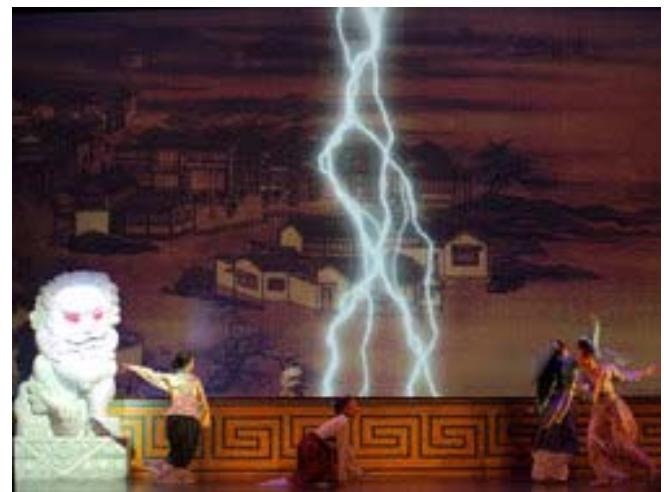
할머니는 남을 돋기를 아주 즐겼는데 밖에 비가 곤 내리려는 것을 보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없나 하여 밖에 나가 보았다.



비속에서 한 부녀가 아이를  
데리고 비 그을 곳을 찾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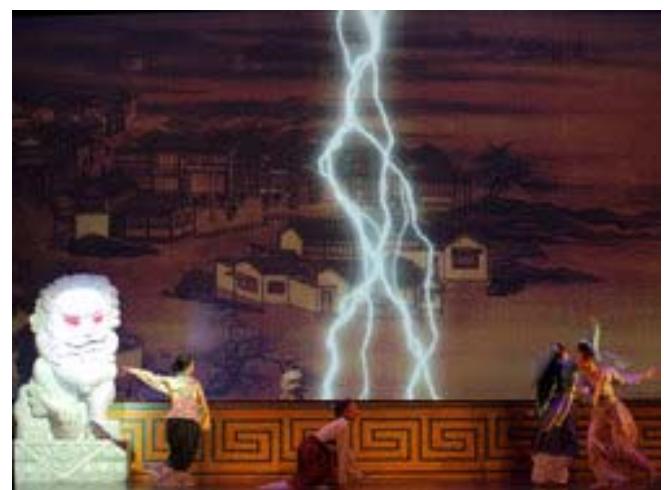
비속에서 한 부녀가 아이를  
데리고 비 그을 곳을 찾고 있었다.



얼마 후, 번개가 치고 우뢰가  
울면서 큰 비가 억수로 쏟아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온 마을은 홍수에  
잠겨버렸다.



비속에서 한 부녀가 아이를  
데리고 비 그을 곳을 찾고 있었다.



얼마 후, 번개가 치고 우뢰가  
울면서 큰 비가 억수로 쏟아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온 마을은 홍수에  
잠겨버렸다.



그래도 할머니의 평상시의  
선량하고 성실한 마음을 보아  
온 착한 사람들은 그녀를 믿고  
마을을 떠나 피신하러 갔다.



할머니는 당장 자신의  
우산을 가져다가 그들  
모녀에게 주었다.



그래도 할머니의 평상시의  
선량하고 성실한 마음을 보아  
온 착한 사람들은 그녀를 믿고  
마을을 떠나 피신하러 갔다.



할머니는 당장 자신의  
우산을 가져다가 그들  
모녀에게 주었다.



거리에는 또 지팡이를  
짚은 늙은 할아버지가 비바람  
속에서 간신히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



그리하여 할머니가 아무리 입이  
닳도록 권고 하여도 할머니의 착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거리에는 또 지팡이를  
짚은 늙은 할아버지가 비바람  
속에서 간신히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



그리하여 할머니가 아무리 입이  
닳도록 권고 하여도 할머니의 착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자 그 불량배들이 나서서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장난으로  
돌사자의 눈에 빨간 칠을 한 것  
이라고 하였다.



이 광경을 보게 된  
할머니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다가 가서 할아버지를  
도와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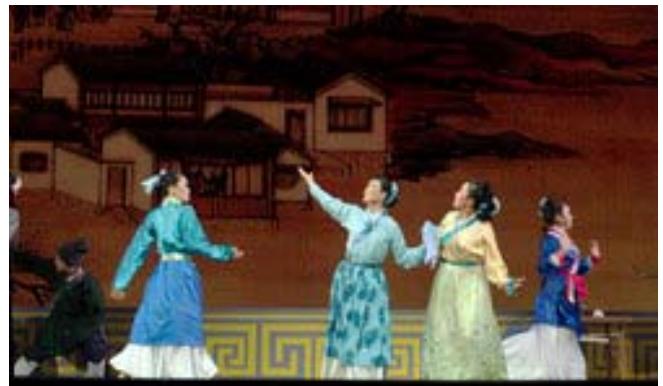
그러자 그 불량배들이 나서서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장난으로  
돌사자의 눈에 빨간 칠을 한 것  
이라고 하였다.



이 광경을 보게 된  
할머니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다가 가서 할아버지를  
도와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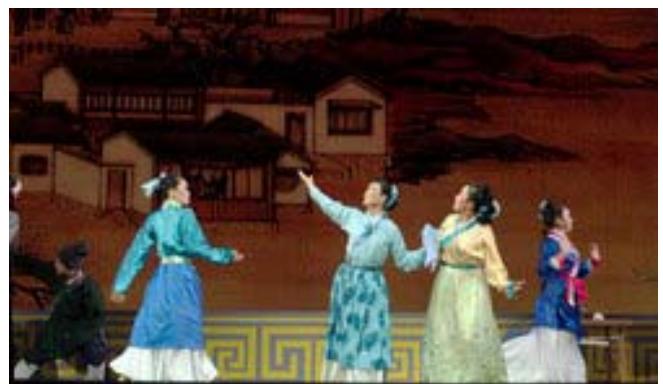
할머니는 자신의 걸옷을  
벗어 늙은 할아버지에게 걸쳐  
주었다.



그녀는 즉시 조급히 마을 사람  
들에게 빨리 마을을 떠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재난이 닥칠 것  
이라고 알려주었다.



할머니는 자신의 걸옷을  
벗어 늙은 할아버지에게 걸쳐  
주었다.



그녀는 즉시 조급히 마을 사람  
들에게 빨리 마을을 떠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재난이 닥칠 것  
이라고 알려주었다.



이튿날, 돌 사자의 눈이  
빨갛게 된 것을 발견한 할머니  
는 깜짝 놀랐다.



어느 하루, 마을에 한  
거지가 왔다. 낡아빠진 옷을  
입은 그녀의 몸에서는 악취가  
풍기고 있었다.



이튿날, 돌 사자의 눈이  
빨갛게 된 것을 발견한 할머니  
는 깜짝 놀랐다.



어느 하루, 마을에 한  
거지가 왔다. 낡아빠진 옷을  
입은 그녀의 몸에서는 악취가  
풍기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는  
모두 코를 싸 쥐고 길을 에돌아  
가면서 그녀를 멀리 하였다.



어느 하루 밤, 마을의 불랑배  
들은 할머니를 조롱하기 위하여 돌  
사자의 눈에 빨간 칠을 하는 못된  
장난을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는  
모두 코를 싸 쥐고 길을 에돌아  
가면서 그녀를 멀리 하였다.



어느 하루 밤, 마을의 불랑배  
들은 할머니를 조롱하기 위하여 돌  
사자의 눈에 빨간 칠을 하는 못된  
장난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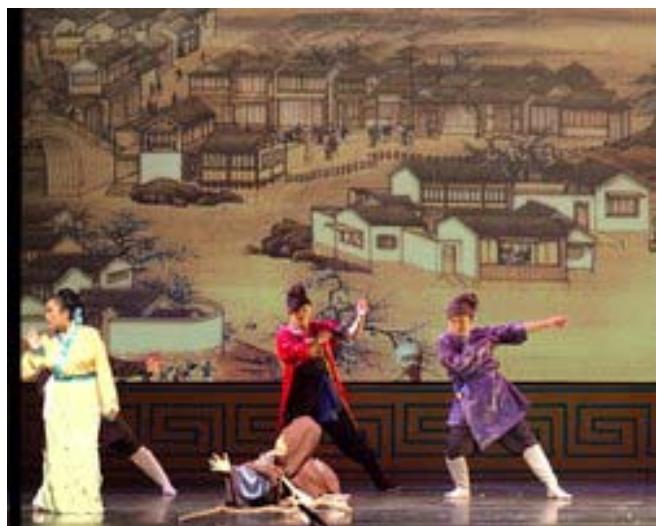
더욱이 나쁜 심보를 품은  
사람들은 심지어 그녀가 요언을  
펴뜨려 여러 사람을 미혹 시킨다  
고 질책하였다.



더욱이 마을에 있는 몇몇  
불량배들은 거지를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발로 쳤다.



더욱이 나쁜 심보를 품은  
사람들은 심지어 그녀가 요언을  
펴뜨려 여러 사람을 미혹 시킨다  
고 질책하였다.



더욱이 마을에 있는 몇몇  
불량배들은 거지를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발로 쳤다.



심지어 그들은 거지의 동냥  
그릇을 빼앗아 박산내어 버렸다.



마을의 대 다수의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비웃으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심지어 그들은 거지의 동냥  
그릇을 빼앗아 박산내어 버렸다.



마을의 대 다수의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비웃으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할머니는 조급히 《마을  
어구 돌사자의 눈이 빨갛게  
변할 때는 곧바로 큰 홍수가  
다가 올 때》라는 소식을  
촌민들에게 알려주고 여러  
사람에게 귀띔 하였다.



비틀거리며 앞으로 걸어  
가던 거지는 굽주림으로  
인해 끝내 지탱하지 못하고  
땅에 쓰러져 버렸다.



할머니는 조급히 《마을  
어구 돌사자의 눈이 빨갛게  
변할 때는 곧바로 큰 홍수가  
다가 올 때》라는 소식을  
촌민들에게 알려주고 여러  
사람에게 귀띔 하였다.



비틀거리며 앞으로 걸어  
가던 거지는 굽주림으로  
인해 끝내 지탱하지 못하고  
땅에 쓰러져 버렸다.



이 광경을 목격한 할머니는  
거지를 집으로 부축하여 가 잘  
보살펴 주려고 하였다.



관음보살은 이 천기를 이야기  
하고 나서 하늘의 선녀들과  
함께 사라졌다.



이 광경을 목격한 할머니는  
거지를 집으로 부축하여 가 잘  
보살펴 주려고 하였다.



관음보살은 이 천기를 이야기  
하고 나서 하늘의 선녀들과  
함께 사라졌다.



관음보살은 할머니에게 이  
진상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 해줄  
수 있으며 누가 믿게 되면 누가 이  
겁난을 피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할머니는 거지를 부축하여  
앉히고 음식을 가져다 대접  
하려고 하였다.



관음보살은 할머니에게 이  
진상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 해줄  
수 있으며 누가 믿게 되면 누가 이  
겁난을 피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할머니는 거지를 부축하여  
앉히고 음식을 가져다 대접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때 생각 밖의  
광경이 펼쳐졌다.



앞으로 마을어구의 돌사자  
눈이 빨갛게 변할 때면 곧 큰  
홍수가 올 때이다.



그런데 이때 생각 밖의  
광경이 펼쳐졌다.



앞으로 마을어구의 돌사자  
눈이 빨갛게 변할 때면 곧 큰  
홍수가 올 때이다.



물에  
잠겨버릴  
것이다.  
』

『  
이제  
곧  
큰  
물이  
져서  
온  
마을이

관음보살이 할머니에게  
알려 주기를:



할머니의 방은 금시에 만물이  
생기를 띠고 금빛이 비쳐 나왔다.  
원래 거지는 관음보살이 분장한 것  
이었다.



물에  
잠겨버릴  
것이다.  
』

『  
이제  
곧  
큰  
물이  
져서  
온  
마을이

관음보살이 할머니에게  
알려 주기를:



할머니의 방은 금시에 만물이  
생기를 띠고 금빛이 비쳐 나왔다.  
원래 거지는 관음보살이 분장한 것  
이었다.



바라보니 하늘의 선녀들이  
춤을 추는 가운데 관음보살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흰  
옷은 백설 같고 모습은 장엄한데  
수시로 밝은 빛을 뿌리고 있었다.

20



눈앞에서 펼쳐진 생각밖  
의 신기한 장면에 놀란 할머니  
는 황망히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다. 그러자 선녀가 그녀를  
부축하여 일으켰다.

21



바라보니 하늘의 선녀들이  
춤을 추는 가운데 관음보살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흰  
옷은 백설 같고 모습은 장엄한데  
수시로 밝은 빛을 뿌리고 있었다.



눈앞에서 펼쳐진 생각밖  
의 신기한 장면에 놀란 할머니  
는 황망히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다. 그러자 선녀가 그녀를  
부축하여 일으켰다.

20

21